

본문: 요한복음 1 장 35-51 절

제목: 유레카, 주님을 만났어요.

1. 갈릴리 사람들의 비참한 삶

제가 2008 년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팔레스틴의 많은 지역들이 강수량도 적고 풀도 잘 자라기 힘든 삭막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달랐습니다. 북쪽의 헐몬산의 눈이 녹아 많은 양의 물이 갈릴리 호수로 밀려들어 옵니다. 풍부한 물을 담고 있는 호수가 있기에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초록색이 풍성했습니다. 호수 너머로 해가 넘어가는 석양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호수 주변에서 일평생을 자라오셨다는 사실에 내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0 여년을 거기서 보냈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묻어 있는 갈릴리가 그냥 좋았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낭만 가득해 보이는 겉모양과 달리 예수님 당시 가장 살기 힘들고 아픔이 많았던 곳입니다. 갈릴리 남쪽으로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곡창 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창지대는 몇 사람의 지주들의 소유였고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소작농으로 지주들의 착취를 받는 상황이었죠. 특히 예수님이 자란 동네인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목수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도 삶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과 뵈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Tetrarchy)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갈릴리의 농민들은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된 그 해 착취와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A.D 4 년에 갈릴리 농민 유다가 큰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세포리스라는 갈릴리의 수도에 있는 헤롯의 요새를 급습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바루스(Varus)라는 장군을 보내 세포리스와 엠마오 같은 도시들을 완전히 불살라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세포리스로 가는 길에 2000 개의 십자가를 세워 반란 세력들을 거기에 못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나사렛의 목수들은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까지는 8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포리스를 재건하는 건설

현장에 요셉과 함께 요셉의 아들 예수도 동원되어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십자가에 메달려 죽는 것은 갈릴리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주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2000 명의 농민들이 그렇게 죽은 사회적인 영향이 아닐까요?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많은 정신병자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은 귀신 받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호수를 주변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에 국제적인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외화벌이를 위해 갈릴리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특히 어부들에게 가해진 세금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부들은 그들의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로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도 전에 세금을 뜯기는 형국이었던 거죠. 게다가 헤롯 안티파스는 돈 벌이를 위해 갈릴리 근처에 물고기를 염장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헐값에 사서 염장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안티파스의 탄압과 폭정은 어부들을 염장지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부, 농부, 목수할 것 없이 모두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렇게 갈릴리 주변에는 시대의 울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조선 말을 상상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갈 듯합니다.

2.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세례 운동이 벌어지는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을 견습하게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이고 한 명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헬라말에 능통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으로 추정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은 예수님을 밀착하여 따라 다닙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그들에게 권유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루가 채 못되어 이 분이 메시아이심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요한은 그때 시간이 오후 네시였다고 39 절에 정확한 시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자신의 형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듯 합니다. 왜냐면 그의 형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형 시몬도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형 시몬도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무리 속에 끼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제자이든 간접적인 제자이든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요한까지 그들의 거쳐인 갈릴리를 떠나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그들 안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지 않아 살아가는 갈릴리 어부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갈망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200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제자로 지목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곧장 200 킬로미터 북상하여 빌립을 찾으러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43 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려고 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헬라이어 동사 뿔로(Thelo, θέλω)는 어떤 사람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와 소원을 나타낼 때 쓰이는 helping verb 입니다. 영어로는 will 이나 ought to 일겁니다. 그냥 갈릴리로 갈 계획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로 반드시 가야할 의지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야할 이유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뒤에 드러나죠. 빌립을 반드시 만났어야 했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에 오래 전부터 빌립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즉시 그를 따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은 직역하면 “나와 같은 길을 걷자꾸나”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같은 도상에 서자는 권면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그 무거운 권면에 빌립은 흔쾌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임의 동행이 너무나 쉽게 이뤄지는 것 같죠. 그런데 44 절은 빌립이 예수를 즉시 따른 이유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빌립이 벳새다 출신이었다는 단서를 줌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을 암시적으로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독자들은 분명 43 절을 읽으면서 ‘빌립 너무 쉬운 남자 아니야? 저렇게 누가 부른다고 막 따라가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독자들을 향해 44 절은 “놀라셨죠? 실은 이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근거로요? 빌립이 벳새다에 살 때 예수님을 알고 지냈었거든요.” 벳새다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의 부촌 중 하나입니다.

갈릴리의 강남 3구가 바로 벧새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곳은 산을 깎아 마을을 만드는 토목 공사가 활발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갈릴리의 베버리힐즈 건축 현장에 다니셨던 겁니다. 그때 빌립을 알고 지냈었을 거라는 거죠. 45 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굳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만나길 원했던 만큼,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길 원했고 찾아 다니셨다는 사실입니다.

3. 예수님을 만난 나dana엘

빌립과 나dana엘과의 만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나dana엘과의 대화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속어들과 관용구들이 등장합니다. 나dana엘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다라는 뜻의 나탄(natan)과 하나님이란 뜻의 엘(EI)이 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빌립이 45 절에 하는 말을 통해 나dana엘은 평소에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를 읽으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 온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dana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은 나사렛을 폄하하는 표현이라기 보다 성경과는 다르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dana엘이 실망감을 드러내자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라는 단순한 권면을 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멀리서 오고 있는 나dana엘을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보아라(ideh, ἴδε)라는 말은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와 대박~" 이런 말이죠. "What a really too Israelite." "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안에 간사함이 전혀 없네, 아침하거나 아부하는 마음이 전혀 없네" 라고 말하자 나dana엘은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언제부터 아시는 겁니까?"라며 예수님의 말을 의아해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등장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 나dana엘은 완전히 이해가 됐는지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길래 이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된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구약 역사 속에 있는 암호를 풀지 않으면 이 말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5 장에 보면 두 광주리의 무화과 열매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3 장 10 절, 열왕기상 4 장 25 절, 미가 4 장 4 절, 약 서너 군데의 성경구절을 볼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관용어구처럼 쓰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즉 자기 곡식을 자기가 팔아먹고 사는 이스라엘 자유농민의 편안한 모습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뜻이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이 나dana엘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나dana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 시대에 있을 법한 이스라엘 자유농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안드레, 요한, 시몬 그리고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려 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참 메시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 사람이었습니다. 속이고 아첨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야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과 혈통적으로 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나dana엘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4. 유레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들과 농민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 본 중요한 사실은 쌍방간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도 자신의 길을 따를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만남을 위한 간절함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 또한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현재형으로 찾고 계십니다. 본문의 중요한 문법적 요소 중에 하나는 현재진행형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43 절에 빌립을 제자로 부르실 때 모두 현재진행형입니다. "빌립을 만난다.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항상 현재진행형입니다. 요한의 복음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현재 진행형을 읽으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46 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빌립은 현재 직설법 (Present Indicative) 으로 답합니다. 진리나 변함 없는 사실을 나타낼 때에만 현재형태를 사용합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한다. “와서 보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현재 직설법 (indicative)으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변함 없는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결단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일 수 없고 미래형일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쓰인 다른 문법적인 요소는 “보다”, “만나다”라는 동사들이 반복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나다의 뜻의 동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말일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그리스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자기가 풀어내지 못한 과학 원리를 생각하며 목욕탕의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몸무게와 부피만큼 물이 탕 밖으로 흘러 넘치자 그는 마침내 자신이 고민했던 과학적 원리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기쁜 나머지 옷도 걸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 나가면서 외쳤던 한 마디가 뭘니까? “유레카”입니다. I found it. I got it. 이런 뜻입니다. 유레카는 eurisko(εὕρισκω)라는 동사의 1 인칭 과거완료형태(Pluperfect)입니다. 현재형이 유리스코(εὕρισκω)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만 eurisko 라는 동사가 41 절에 두 번, 43 절에 한 번, 45 절에 두 번, 총 다섯번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 ‘만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에 모두 유리스코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를 진짜 알아가기 위해서는 피지컬한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대면하지 않고 소문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난 이들은 아르키메데스 이상의 반응을 터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내가 만났어. 나는 그분을 경험했어.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자신이 만난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유레카”라는 탄성이 계속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I found Him. I got Him through you.” 여기 사과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과를 안다는 것은, 뜻고 씹고 맛보고 즐긴 이후에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과 같이 꼭 가운데 중매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간사함 없이, 거짓 됨 없이 투명하게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해지면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이구요. Messenger 가 Message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지요.

5. 이웃이 된다는 것

우리가 처음 시작하며 나눈 갈릴리 어부들과 농부들의 비참한 삶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의 표정을 한 번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웃는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폭군 아래서 모두가 신음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심정으로 요단강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은 찌뿌리고 주름진 얼굴로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나dana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구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시몬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게바와 같은 뜻의 헬라말이 ‘페트라’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Peter 로 불리는 것이구요. 페트라라는 흔들림 없는 기반, 든든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지요. 매우 좋은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께 오자마자 그를 그렇게 호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은 울상에 꾸글꾸글한 삶인데도 예수님은 그의 모습 속에서 페트라를 발견하신 겁니다.

나dana엘은 어떻습니까? 땀국물 질질 흐르는 갈릴리 농부인 나dana엘 속에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발견하십니다. 나dana엘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매우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을 나dana엘이 들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유레카’를 외치며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가능성들을 호명해 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니가 페트라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페트라가 되어야만 해. 넌 페트라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죠.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호명해 준 것이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옮겼었습니다. 친구가 자기네 교회 청년부 찬양인도를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귀한 멘토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백경홍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저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는 저를 목사님 댁의 저녁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밥을 먹여주셨죠. 저녁 식사 후에는 목사님 가족과 개그콘서트를 같이 보았습니다. 저야말로 당시 땃국물이 질질 흐르는 보잘 것 없는 청년이었는데 제 안에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안내해 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파벳을 땃습니다. 당시 시골에서 알파벳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시골길에 차가 많이 안 지나다니잖아요. 가끔 차가 지나가면 그 차 뒤에 있는 차 이름을 자음 모음을 합쳐서 읽는 것이 초등학생인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Stella, Presto, Pride 이런 차들을 소리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가니 이미 저는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영어시간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 누나들이 쓰던 영어사전을 들고 갔습니다. 그 시골 학교 1학년 반에 저 혼자 영어사전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교사셨고 아름다우셨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 분이 영어시간마다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그 이후 영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호명해 준 것이 내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에 와 살고 있네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충돌합니다. 이웃 사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선한 것을 호명해 내 주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의 가능성들을 꼬집어 내어 험담하고 뒷담화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에 보여지지 않는 선의 가능성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다른 이의 마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꼬집어 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 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투명하고 소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다른 이들의 선한 가능성들을 호명해 주어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 주제- 타인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호명해 내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